

중부전선 전방부대 방문

평화를 지키려면 강력한 전투력과, 관용할 줄 아는 가치를 균형 있게 가져 가야...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전투력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미래에도 군에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평화가 달려있습니다. 우리 군을 최강의 군대로 만들어 주십시오. 사명감과 보람을 가지고 복무해 주십시오.

군은 전쟁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위해 존재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 말에 평화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힘이 없어서 국권을 빼앗겼듯이 강한 힘을 가지고 평화를 지키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진 나라가 세계평화를 지켜갑니다. 힘만 가지고는 평화를 지킬 수 없고,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 평화를 사랑하고 관대하며 대화할 줄 알아야 비로소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한반도의 안정과 먼 훗날의 평화를 지키려면 강력한 전투력과, 관용할 줄 아는 가치를 균형 있게 가져가야 합니다.

군생활을 보면 ‘세상이 많이 변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지금보다 어렵고 나빴던 시대를 볼 수 있는데, 지금은 할 수 있고 좋아질 수 있다는 자신감과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과거보다 더 나은, 좋은 방향으로 가는 현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열심히 노력하여 공허한 이상이 아니라 도달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

지고 자신 있게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군대도 함께 좋아지고 있습니다. 군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이 제일 큰 진전입니다. 군이 이전보다 선입견과 편견 없이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불합리한 관행들이 사라지면서 군 내부도 합리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군은 사병들이 청춘을, 직업군인들은 일생을 바치고, 유사시 목숨을 내놔야 하는 특수한 자리입니다. 이에 상응하는 국가적 대접과 국민들의 대우가 있어야 하고, 특히 30~40대에 군을 떠나는 사람들이 그 이후의 삶이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목숨을 받쳐서라도 임무를 완수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군 구조를 인력 중심이 아닌 기술과 장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많은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 구조개편보다 직업안정대책을 세우는 것이 순서입니다. 군 구조개혁안을 재촉하기보다 장기복무한 뒤 전역했을 때의 생활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고, 국방부와 보훈처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군의 근간인 군인들의 기본적인 생활조건들이 갖춰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야말로 사기가 충천하고, 질서가 정연하며, 전투력이 강한 부대가 꼭 필요합니다.